

삼성 KPMG

성공하는 기업의 비즈니스 어드바이저

Channel

2018 February_Vol.181





Cover story

미래를 내다보고,
변화를 주도하는 삼정KPMG

세계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거센 파도 앞에 놓여 있습니다. 5G, 블록체인, 자율주행 기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눈 뜨고 일어나면 하루 새 많은 것이 변하는 놀라운 세상입니다.

삼정KPMG는 변화의 시대 속에서 기업들이 'Fast Follower'가 아닌,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나가는 'First Mover'가 될 수 있도록 미래를 내다보고 변화를 주도하는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도전과 혁신으로 삼정KPMG와 함께 시장을 선도해 가는 'First Mover'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Contents

February 2018 Vol.181 삼성KPMG 뉴스레터.

건강한 성장

- 04 **Issue Focus**
WEF 공식 후원사 KPMG, 고객을 위한
비즈니스 기회 및 성장 방안 모색
- 06 **Team Story**
삼성KPMG 금리체계 서비스팀
- 08 **Client+**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 10 **Market Reader**
가상화폐 동향과 블록체인의 활용 가능성은?
- 12 **Expert's Advice**
외감법 개정에 따른 Fraud Audit의
변화 방향 및 준비 사항은?
- 13 **맛있는 경제**
알면 더 좋은 시사·경제 상식!

행복한 일터

- 15 **삼.소.해**
그때 그 시절! 삼성인의 추억을 담은 졸업 사진은?
- 16 **인재양성소**
졸업 삼성인의 10년 뒤의 모습은?
- 18 **KPMG Tour**
자연 친화적인 도시, 암스테르담으로 Go!
- 20 **Talk+Play+Love**
우리들의 아름다운 추억 한 조각!
- 22 **행복충전소**
워라밸 지키며 행복 만드는 삼성인!
- 24 **Culture & Etiquett**
기회의 땅, 베트남 문화와 에티켓
- 26 **KPMG Story**
Values: What we believe in
- 28 **Samjong News**
삼성KPMG, 2017 M&A 리그테이블 석권 外



발행처 삼성KPMG 기획·편집 홍보팀(02-2112-7567) 디자인 네오메디아(02-512-1666) 인쇄 보명C&I(02-2274-4545)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강남파이낸스센터 27층 (우편번호)06236 홈페이지 www.kpmg.com/kr

QR코드를 통해 삼성KPMG의 생생한 정보를 만나보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삼성KPMG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제48회 다보스포럼 ‘분열된 세계 속 공동 미래 창조’ 논의 WEF 공식 후원사 KPMG, 고객을 위한 비즈니스 기회 및 성장 방안 모색

2018년 1월, 전 세계 경제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스위스 다보스에 모였다. 2018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 연차총회, 일명 다보스포럼이 지난 1월 23일부터 26일까지 개최됐다. KPMG International은 수년간 WEF의 공식 후원사로 활동하며 급변하는 세계 경제를 진단하고, 그 방안을 모색하는 등 고객 성장과 세계 경제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가상화폐-보호무역주의, 그리고 화제에 선 트럼프 대통령

2018 다보스포럼이 지난 1월 23일부터 26일까지 스위스 동부 다보스에서 개최됐다. 올해는 ‘분열된 세계 속 공동 미래 창조’를 주제로, 급변하는 시대에 전 인류가 함께 어떻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갈지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포럼에서 주목한 주요 이슈는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공통된 가치를 통한 미래 사회 구축’, ‘4차 산업의 미래 상에 대한 고찰’ 등이었다. 그중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적으로 이슈인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대해 내놓은 글로벌 리더들의 다양한 의견이 눈길을 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예일대학 로버트 실러 교수는 “비트코인은 이기적인 통화”라며, 금융과 IT를 융합한 핀테크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비트코인은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스웨덴 중앙은행 세실리아 스킵슬리 부총재도 “현재까지 비트코인 등의 가상통화를 통화(돈)라고 부르기 위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다보스포럼 이슈의 중심에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있었다. 폐막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가 미국 고립주의라는 의미가 아니다. 미국이 성장할 때 세계도 성장한다”면서 미국 경제 성장이 촉진되면 세계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미국은 더 이상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눈 감지 않을 것이다. 일부 국가가 다른 국가를 희생하도록 시스템을 악용한다면 우리는 자유롭게 개방적 무역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보호 무역주의 강화에 대해 각국 수장은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인도 모디 총리는 개막 연설에서 “많은 사회와 국가가 자기중심적이 돼 세계화가 위축됐다. 보호주의와 보호주의를 강화하려는 힘이 부상하고 있다”고 경고했으며, 캐나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도 같은 날 트럼프 취임 후 위태로워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2018 다보스포럼의 공동의장 7명 모두 여성으로 선정됐다.



- 1, 6. 'The Global Business Context' 세션에 참여한 빌 토마스 회장
- 2, 3. 다보스포럼 현장(출처: World Economic Forum, Flickr)
4. 2018 다보스포럼 폐막 연설을 맡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 (출처: World Economic Forum, Flickr)
5. 기업 경영인, 경제 및 정부 주요 인사들이 소통한 KPMG Reception 현장

공동의장단이 모두 여성으로 채워진 것은 1971년 다보스포럼 발족 이후 48년 만에 처음이며, 과거 남성 지배적인 분위기 때문에 포럼 참석자를 '다보스 맨'이라 부른 바 있어 더욱 눈길을 끈다.

KPMG, 기술이 비즈니스 '위협'이 아닌 '기회'가 되도록 고객 맞춤형 솔루션 제시해 나갈 것

WEF 공식 후원사로 활동 중인 KPMG International은 빌 토마스 회장 및 각국 주요 파트너들이 다보스포럼에 참석해 세션은 물론 주요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세계 경제에 대해 진단하며, 방안을 모색했다. 빌 토마스 회장은 'The Global Business Context' 주제로 열린 세션에 인포시스의 살릴 파레 CEO, BBVA의 프란시스코 회장, NBC 유니버설의 린다 회장과 함께 패널에 출연해 기술 및 컨버전스가 글로벌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빌 회장은 '2017 Global CEO Outlook'의 조사 결과를 활용해 기술이 비즈니스 위협이 아닌 기회가 되는 법, 또 오늘날 환경에서 성공하기 위해 제휴 및 외부 관계를 발전시키는 방법에 대해 말했다. 또한 금융 산업에 대한 빠른 디지털 변환 및 클라우드의 영향, 남성과 여성 리더의 중요성에 대해 기업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등에 관하여 논의했다.

포럼이 열린 첫째 날 밤에는 고객과의 소통의 자리인 'KPMG Reception'이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450명이 넘는 고객과 경제 및 정부 주요 인사들이 참여했으며, 이들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비즈니스 환경이 어떻게 변화될지, 또 이 변화 속에서 기업들은 어떤 기회를 찾아야 하는지 등에 대해 토론했다. 이외에도 현장에서는 KPMG가 후원하는 세계적인 골퍼 필 미켈슨, 폴 던, 스테이시 루이스에게 가상으로 골프를 배울 수 있는 골프 시뮬레이터 공간

도 마련해, 참석자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KPMG는 자체 개발한 혁신적인 데이터 시각화 플랫폼 'WEFLive' 서비스를 제공해 포럼 참석자들의 트위터 내용을 분석하고, 전 세계 사람들의 반응을 즉각적으로 살펴봤다.

세계 각국의 주요 인사들이 각종 정보를 교환하고, 세계 경제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한 2018 다보스포럼. 올해는 트럼프 대통령이 폐막식에서 거둬 보호 무역주의를 강조해,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무역 전쟁을 예상케 했다. 세계적으로 정치적, 경제적 갈등이 심화된 상황이지만 삼정KPMG는 전 세계 154개국의 KPMG Global Network와의 협업을 통해 기업들의 세계화 전략에 더욱 힘써 나갈 것이다. 특히, 포럼에서 다뤄진 주요 이슈 등을 통해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2018 발생 가능성 높은 5대 리스크



2018 파급력이 큰 5대 리스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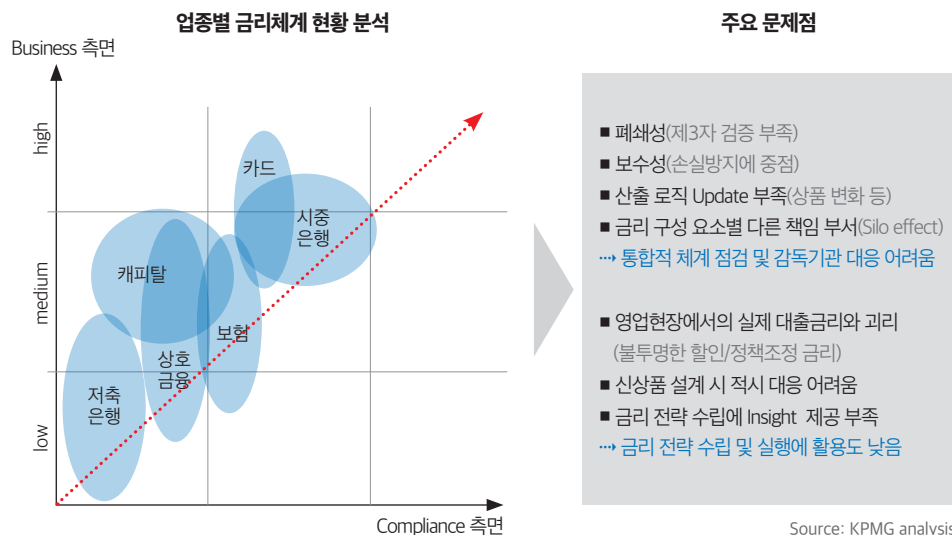
자료: WEF 글로벌 리스크 리포트 2018

금융기관의 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삼성KPMG 금리체계 서비스팀

삼성KPMG 금리체계 서비스팀은 '금융기관의 상품판매가격'인 대출 등에 대한 금리 산정 체계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팀으로, 2016년 복잡 다양한 금융기관의 금리체계 관련 대내외 환경 변화에 선제 대응하고자 출범했다. 이후 금리체계 전반에 걸친 차별화된 컨설팅 서비스로, 여러 금융기관의 금리체계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다.

금리체계, 수익창출 위한 핵심 영업정보 및 소비자 보호 위한 투명성 담보 목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

최근까지 금융기관은 비즈니스 활용 측면에서 금리체계가 발전되어 왔으며, 중요 영업정보 관리 측면에서 내부적으로 금리체계를 수립하려는 경향이 강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금리투명성 제고를 위한 외부 검증 노력은 부족했고 이는 최근의 사회적인 요구사항과 상충되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했다.



현재 금리체계 관련 이슈는 '금융감독원의 금리체계 모범규준의 엄격한 준수 요구'와 '운용 중인 금리체계의 낮은 활용도'라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리체계 모범규준(대출금리 산정 및 운용에 관한 모범관행 제시)을 2012년 은행부터 시작해 각 업권별로 제정했다. 이후 각 금융기관에 모범규준에 의한 금리체계 수립을 요구하고, 수립된 금리체계에 대해서는 원가 요소별 방법론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보완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최근 언론에 카드론 금리, 저축은행 신용대출금리, 은행의 가산금리에 대한 금융감독원 결과가

점차 보도되고 있다. 소비자보호에 초점을 둔 금융감독원의 행보는 작년과 올해 시장에서 금리체계 용역을 발주하는 주된 이유이다. 방법론에 대한 제3자의 검증이 부족하고, 신상품 출시 등 경영환경 변화를 반영한 업데이트가 부족한 대부분 금융기관은 감독기관 대응이 어려워 통합적 체계의 점검이 필요하다.

현재의 금리체계는 규제에 대응해서 수립되거나 영업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아 금리전략 수립 및 실행 시 활용도가 낮다. 그 결과, 원가요소를 고율로 산정하고 불투명한 할인으로 실제 실행금리가 결정되는 등 실제 영업과의 괴리가 발생하곤 한다.

또한 신상품 개발, 한도부여 등의 전략적 의사결정에는 금리체계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금리는 '상품의 가격'으로 영업전략에 활용될 여지가 충분하다.

이제 금리체계는 금융기관의 수익창출을 위한 핵심 영업정보이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투명성 담보라는 두 가지 목적으로 균형 있게 추구해야 한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더욱 강화하여 금융기관의 가치를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다수의 경험 및 노하우 겸비한 금리체계 서비스팀

삼성KPMG는 금융기관 금리체계 관련 대내외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2016년 법인 내 PSSG(Product Specialist Steering Group)의 지원으로 기존 연관 경험과 인력들을 재구성해 금리체계 서비스팀을 출범했다. 이후 2년간 KB카드, 대구은행, 포스바전파이낸셜, 산림조합중앙회, 광주은행, 수협은행 등 다양한 금융기관들의 금리체계 서비스를 담당하며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금리결정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한 공을 인정받아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CEO 감사패를 수여 받은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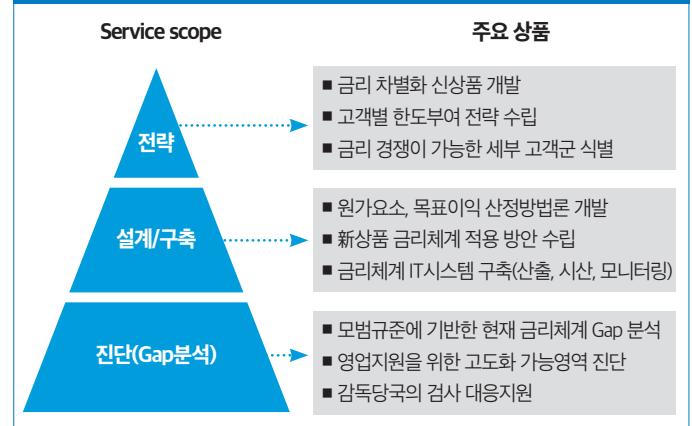
삼성KPMG 금리체계 서비스팀만의 차별화된 강점은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금리체계 진단부터 설계, 시스템구축, 전략에 이르기까지 금리체계 전반에 걸친 컨설팅 제공 역량을 갖춘 것, 둘째 최근 시장에서 가장 많은 금리체계 컨설팅 경험과 관련 인력을 보유한 점, 마지막으로 리스크컨설팅본부(RCS)와 금융사업본부(B&F) 등 리스크/회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통합적 관점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삼성KPMG 금리체계 서비스팀은 현재까지 축적된 다양한 고객의 Needs에 따른 성공적인 컨설팅 경험과 노하우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컴플라이언스 및 금리투명성 이상의 기업의 가치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컨설팅으로 확대하고자 한다.

특히, 금융기관 내 다양한 정형/비정형 빅데이터에 대한 Data & Analytics에 기반을 둔 차별화된 금리전략 컨설팅 또는 적시성 있는 금

리 전략 실행을 지원할 수 있는 금리체계 고도화 컨설팅으로 진화하고자 한다. 또한, 대출금리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수신금리, 각종 수수료 등 Pricing 체계 전반에 대한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삼성KPMG 금리체계 서비스팀’ 주요 서비스



삼성KPMG 금리체계 서비스팀의 최고 장점은?

‘열린 귀와 차가운 머리’. 금리체계는 컴플라이언스 충족과 영업경쟁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복잡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하나의 일관된 시스템으로 녹여내야 합니다. 삼성KPMG 금리체계팀은 고객의 소리를 듣는데 탁월한 열린 귀와 복잡한 이슈를 통합적 관점으로 풀어내는 차가운 머리를 가졌습니다.

양현석 상무

Tel. 02-2112-3009 / E-mail. hyunseokyang@kr.kpmg.com

‘변화하지 않는 가격체계는 디지털 혁신시대의 가장 좋은 공격대상입니다.’ 최근 인터넷뱅크 출범 등에 따른 금융혁신에 따라 금융업의 가격경쟁은 더욱 치열해지며, 모든 것은 고객들에 의해 비교/검증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환경에서 경쟁우위 확보의 핵심조건은 ‘투명하고 정확한 원가 분석에 기반한 고객별 맞춤형 가격체계 구축’입니다.

김진귀 상무

Tel. 02-2112-0223 / E-mail. jinkwikim@kr.kpmg.com



1. 리스크/회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금리체계 서비스팀

2. 지난해 12월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금리 프로젝트 CEO 감사패를 수여 받은 삼성KPMG

혁신과 도전으로 세계로 뻗어가는 글로벌 건축기업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우리나라 건축 업계를 대표하는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희림)는 1970년 설립 이후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으로 글로벌 종합건축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건축 설계, 건설사업관리(CM), 감리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오랜 세월 축적한 건축 설계 기술력과 건설 사업 관리 노하우를 바탕으로 건축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

세계가 주목하는 공항 설계 NO.1 건축 기업

최근 개항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은 희림이 설계와 감리를 수행한 프로젝트이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이어 제2여객터미널도 성공리에 준공되면서 희림의 우수한 공항 설계 기술력과 경험이 전 세계에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희림은 국내외 공항 관련 수많은 실적과 전문성, 글로벌 네트워크까지 갖춘 독보적인 건축 회사로 우리나라 공항 건축의 위상을 높이고, 한국형 스마트공항의 수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희림은 공항 리노베이션 및 확장공사, 신공항 디자인 등 공항 관련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설계 기술력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및 탑승동, 제2여객터미널 등 인천국제공항 전 단계 건설 사업에 참여했고, 제주국제공항 증축 및 시설 확충,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여객터미널 리노베이션 등을 수행하며 공항 설계 기술력을 축적하고 있다. 최근에는 김포국제공항 개발 마스터플랜, 김해신공항 기본 계획 수립에도 참여 중이다.

또한 아시아는 물론 반대편 아프리카 지역까지 공항 설계 기술력과 노하우를 수출하고 있다. 러시아 하바롭스크 국제공항 마스터플랜 및 이르쿠츠크 에어시티 마스터플랜, 중국 청도신공항 인테리어 설계, 아프리카 적도기니 몽고메리국제공항 설계, 카자흐스탄 알마티 국제공항 증축 타당성조사,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국제공항 신여객터미널 타당성 조사, 필리핀 푸에르토프린세스공항 CM 등 다양한 지역에서 공항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방글라데시 사이드푸르공항과 바리살공항 여객터미널 증축 및 시설 개선, 오스마니국제공항 여객터미널 설계 등을 수주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가고 있다.

평창올림픽, 아이스아레나경기장 설계 및 감리 성공적 수행

희림은 수많은 스포츠 시설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통해 세계 최고의 경기장 설계 기술력과 디자인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 등 다양한 종류의 국제 스포츠 이벤트를 경험했으며, 비드북(유치제안서), 마스터플랜, 메인스타디움 및 종목별 경기장, IBC 국제방송센터, 오버레이,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스포츠 이벤트 전 과정을 수행한 바 있다. 특히 평창동계올림픽 마스터플랜, 비드북(유치제안서) 등을 통해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도 큰 힘을 보탰으



아제르바이잔 바쿠 올림픽스타디움



아제르바이잔
수자원공사(AZERSU) 사옥

아제르바이잔
국영석유공사(SOCAR) 사옥

며, 피겨 스케이팅과 쇼트트랙 경기가 열리는 강릉 아이스아레나 경기장의 설계와 감리를 맡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도 했다.

희림은 스포츠시설의 다양한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국가나 지역의 아이덴티티를 반영한 경기장 디자인과 친환경 설계, 사후 활용 방안 등 스포츠 시설의 최신 트렌드를 적극 반영하고 있으며, 설계와 CM을 일괄 수행하는 DCM(Design Construction Management) 서비스를 통해 건축물의 완성도를 높이고, 공기를 단축하는 등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 그 결과 희림이 설계한 경기장 대부분은 아름다운 디자인과 획기적인 설계로 다양한 수상 실적을 자랑하고 있다. 아제르바이잔 바쿠 올림픽스타디움은 세계적인 건설 전문지 ENR(Engineering News Record)이 선정하는 스포츠시설부문 '글로벌 베스트 프로젝트(Global Best Projects)'에 선정됐고, '2016 월드 스타디움 콩그레스' 올해의 경기장과 건축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한 국제컨설팅엔지니어링연맹(FIDIC)이 주최한 'FIDIC 2016 AWARDS'에서 'Award of Merit 2016'에 선정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희림이 설계한 2022년 카타르 월드컵 경기장인 '알투마마 스타디움'이 'BIM AWARDS 2017'에서 국토교통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글로벌 성장과 함께 사회적 책임 실현에 앞장서는 기업

희림은 2000년대 초반에 업계 처음으로 단독 해외 진출에 성공해

다양한 해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현재는 미국, 중국, 이란, 베트남, 아제르바이잔, 아랍에미리트, 방글라데시, 이라크,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등 여러 지역의 해외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ENR이 선정한 세계 200대 회사에 7년 동안(2008~2014, 2017) 선정됐고, 유럽 건축 전문 잡지 '빌딩디자인(Building Design)'에서는 전 세계 건축설계회사 중 17위를 차지했다. 희림은 해외 현장 및 지사에서 경제적 성과 창출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함으로써 기부가치를 창출하고 환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지 임직원들이 장애아동 병원을 정기 방문하고, 물품 지원을 하는 등 CSR 활동을 통해, 기업 이미지 제고 및 진출국의 문화와 정서에 스며들어 갈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 중이다.

또한, 다양한 건축관련 대학, 협회 등에 지속적인 기부 활동을 통해 건축산업의 발전과 우수인재 육성에 대한 지원과 '해비타트 사랑의 집 짓기' 참여로 다양한 계층과 소외된 사회층에 대한 지원과 소통을 꾸준히 이어 나가고 있다. 이외에도 지난 2017년에는 KOTRA가 주관한 '글로벌 CSR' 사업에 지원·선정되어, 베트남 하노이에서 현지 기관 및 기업들을 대상으로 '도시개발 기술학교' 형태의 CSR 사업을 진행했다. 희림은 글로벌 CSR 사업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매년 사업 기회를 모색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각지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heerim
Architects & Planners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가상화폐 동향과 블록체인의 활용 가능성은?

가상화폐 열풍, 1년 새 2,000% 이상 급등

세계적으로 가상화폐의 열기가 그 어느 때 보다 뜨겁다. 국내외 가상화폐 시장은 1년 사이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이 약 2,000% 이상 급등하며 가상화폐 시장 확대를 이끌었다. 국내에서는 가상화폐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익률의 매력에 1인당 평균 100만~500만 원가량 투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가상화폐에 몰리는 배경은 접근이 쉽고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크기 때문이다.

비트코인 가격 추이 (BTC/USD)



출처: Coinmarketcap.com, 2/2 기준

TOP 5 가상화폐 시가총액 순위

1		비트코인	1,545,078 억 원
2		이더리움	940,251 억 원
3		리플	322,258 억 원
4		비트코인캐시	207,611 억 원
5		에이더	89,156 억 원

출처: Upbit.com, 2/2 기준

비트코인, 그 시작은?

비트코인은 2008년 한 홈페이지(www.bitcoin.org)에 게재된 '사토시 나카모토'의 논문을 통해 알려졌다. 아직까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에 대해 공통으로 합의된 정의는 없다. 가상화폐는 일종의 사이버 머니로 발행과 유통을 담당하는 중앙기관이 없어 법적 규제가 거의 없으며, 최초 화폐 발행 주체의 규칙에 따라 발행량과 가치가 결정된다. 특히, 비트코인의 핵심인 블록체인 시스템을 이용하여 거래 승인과정에서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블록체인이란 중개자 없이 거래 당사자 간 직접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블록체인에서는 중앙 서버나 직원 없이도 거래 장부를 모든 사용자가 나눠서 보관하고 계속 새로 거래가 생길 때마다 업데이트한다. 이 기술을 응용해 만든 게 바로 비트코인이다. 비트코인은 이를 10분마다 하나의 블록(Block)에 거래내역을 저장하고, 새로운 블록을 연결(Chain)해 디지털 거래 장부를 생성한다. 거래 장부인 블록들이 체인처럼 얹혀 위조가 불가능하게 설

최근 TV 뉴스나 포털사이트 메인을 장식하는 가장 핫한 이슈 중 ‘비트코인’을 빼놓을 수 없다. 전 세계적으로 가상통화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비트코인 광풍이 불고 있다. 비트코인은 무엇이며 언제 시작되었는지, 또 왜 이런 열풍이 왜 일어났는지 등에 대해 삼성KPMG 경제연구원과 함께 알아봤다.

계됐다.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발전과 함께 현재 금융·물류·행정 등 민간 및 공공 분야에 걸쳐 점차 확산되고 있다.

| 정부, 가상통화 투자 열기로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발표

블록체인 기술이 다양한 산업에 걸쳐 활용되면서, 가상통화 투자에 상당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우려하는 부분은 가상통화의 뜨거운 투자 열기다. 정부는 가상통화 시장에 대해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을 발표하며 시중 은행들의 가상통화 계좌를 잇달아 폐지하도록 유도하고,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조치를 검토하는 등 투자과열을 방지하는 차원의 조치를 내놓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를 통해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청소년 및 비거주자 등의 신규 투기수요의 진입을 차단하는 등의 정책을 조속히 추진하고 있다.

| 지금은 변화 이끄는 블록체인 활용 가능성에 주목 할 때

한편, 블록체인 기술은 여러 산업에 빠르게 도입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분야는 해외 송금 분야다. 현재 은행을 통해 가능한 환전이나 해외 송금은 보내는 국가의 은행과 받는 국가의 은행에서 떼가는 이중 수수료로 인해 수수료의 부담이 크다. 그러나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통화에는 국경이 없기 때문에 어느 나라를 통해도 환전이 필요 없고 중개 기관들을 거치지 않아 수수료가 저렴하다. 블록체인이 점차 상용화되면 식품 유통시장에도 가장 큰 변화가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농산물의 재배부터 어떤 유통과정을 거쳐 매장에 들어오는지 실시간으로 알 수 있다. 미국의 월마트는 육류를 납품하는 축산 농가와 보관 창고 등 운송 경로 전체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했다. 사료는 무엇을 먹었는지, 어떻게 도축됐는지, 보관 창고는 어디인지 등의 세세한 정보가 월마트 전산에 실시간으로 보고되며 소비자는 유통 과정을 투명하게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블록체인은 전자서명 분야를 편리하게 바꿀 수 있다. 홈페이지 로그인 시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아 하루에도 몇 번씩 비밀번호 찾기를 했던 경험은 모두가 있을 것이다. 블록체인은 매번 비밀번호를 바꿔야 하는 수고와 부담을 덜어주며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통해 전 세계 어느 사이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해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다양한 산업에 걸친 블록체인의 활용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 기업들은 블록체인 기술의 적극적인 적용을 통해 원자재 관리, 물류 관리, 고객 접점 관리 등의 경영 효율화를 도모하고, 신규 비즈니스를 창출해 나가야 한다. 정책적으로도 기업들의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활용 영역 등에 관한 선도 사례 공유를 통해 유망산업 발굴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CONTACT US

삼성KPMG 경제연구원

조민주 선임연구원

Tel. 02-2112-7589

E-mail. minjoocho@kr.kpmg.com

외감법 개정에 따른 Fraud Audit의 변화 방향 및 준비 사항은?

최근 회계투명성을 위해 외부감사법 개정됨에 따라 Fraud Audit에 대한 규정도 함께 변화될 예정이다. 과연 Fraud Audit은 무엇인지,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기업과 감사위원회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삼정KPMG 전문가를 통해 답을 들어봤다.



삼정KPMG 포렌식 리더
고정우 상무

Q. 외감법 개정으로 인해 Fraud Audit*은 어떻게 변화되나요?

A.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될 '개정외감법 제22조 부정행위 등의 보고'는 감사인이 회계처리 위반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고, 통보받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 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회계처리기준위반'이라 함은 외감법 개정 취지에 따라 의도적 행위가 연루된 회계부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부정은 경영진, 지배기구, 종업원 또는 제3자 중 1인 이상이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기만행위가 연루된 의도적 행위로 정의할 수 있으며, 부정한 재무보고와 자산의 횡령을 포함합니다. 특히, 부정한 재무보고는 직접적으로 가공의 회계처리를 기록하는 행위는 물론, 회계처리를 위한 추정에 있어 부적합하게 가정을 수정하거나, 의도적으로 사건 또는 거래를 누락시키는 행위, 거래의 인식 시기를 조정하는 행위 및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공시하지 않는 행위 등 재무보고를 왜곡시키기 위한 일체의 '의도된 행위'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판단 여하에 따라 그 범위가 매우 포괄적입니다. 따라서, 향후 회사나 감사인 모두 엄격하게 부정을 판단하도록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만약, 외부감사의 과정에서 부정이 발견된다면, 예외 없이 감사(위원회)에 통보되고 적극적인 외부전문가를 통해 조사가 수행돼야 할 것이며, 그 조사결과에 대한 감사인의 추가적인 절차를 통해 감사의견이 형성되는 프로세스가 정립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국은 1934년 증권거래법 Section 10A에 따라 이러한 approach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이번 외감법 개정으로 한국의 부정에 대한 감사 절차도 미국과 유사한 방향으로 변경되어 회계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Fraud Audit 변화에 따른 기업과 감사위원회 등이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 개정외감법 제22조는 부정이 발견된 이후 취해야 할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발생한 부정은 회사, 주주,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회사의 재무보고와 관련된 신뢰성에도 큰 타격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회계부정 등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과 감사(위원회)는 이러한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조치로 윤리경영을 강조하고 내부고발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외감법에 따라 향후 인증수준이 감사로 상향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실질적으로 부정을 예방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설계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엄격하게 운영되는 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이러한 제도적 정비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적으로 관대하게 인식되어 온 '회계부정'이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키는 불법행위임을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Fraud Audit: 부정위험의 식별, 관련 위험에 대응하는 감사절차를 지칭하는 것으로, 부정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영역에 대한 내부통제의 평가, 부정 적발의 감사절차를 포함하는 '사전적인 절차'와 구체적인 부정 사건이나 의혹이 발견된 경우에 대응하는 '사후적인 감사절차'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100%

알면 더 좋은 시사·경제 상식!

요즘은 TV, 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등을 통해 무분별한 정보가 쏟아지는 그야말로 정보 홍수화 시대이다. 수많은 정보 중 우리가 알면 더 좋은 시사·경제 상식은 무엇이 있을까? <맛있는 경제>가 주목해야 할 이슈에 대해 소개한다.

유니콘 기업

‘유니콘 기업’이란 기업가치가 1조 원을 넘는 비상장 스타트업을 뜻한다. 스타트업이 상장도 하기 전에 기업 가치가 1조 원 이상 되는 것이 상상 속에서나 가능하다는 뜻에서 허구의 동물인 유니콘에 빗댔다. 하지만, 기술 발전 등으로 시장 환경이 급속도로 변하면서 최근 유니콘 기업들이 현실에서도 등장하고 있다. 외신 테크크런치(tech crunch)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약 223개의 유니콘 기업이 있다. 우버와 샤오미, 에어비엔비, 드롭박스 등의 기업이 포함됐으며 100여 개는 미국에, 50여 개는 중국에 포진해있다. 국내에서도 쿠팡과 옐로모바일 등이 유니콘 기업으로 꼽힌다.

출처: 연합인포맥스

라이드 셰어링 (Ride Shar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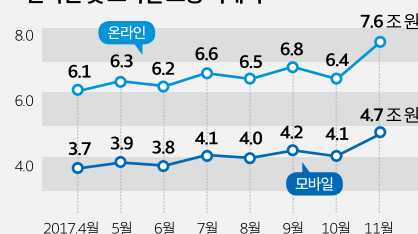
승차공유 서비스를 의미하는 라이드 셰어링은 최근 공유경제 활성화와 차량 공유 문화 확산으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산업 분야다. 세계에서 유명한 기업으로는 우버가 있으며, 여러 국가에 진출하며 기업 가치 7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다. 국내에서는 카풀 애플리케이션 풀러스가 있다. 2016년 5월 첫선을 보인 풀러스는 1년 만에 누적 이용자 2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성장성이 높은 스타트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내 스타트업 모임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승차공유 경험자 300명 중 96.6%가 라이드 셰어링이 경제적 비용 절감, 교통체증 완화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고 답했다.

출처: 연합인포맥스

국내 온라인 쇼핑 매출 7조 첫 돌파... 모바일 비중도 급증

통계청이 지난 1월 2일 발표한 온라인 쇼핑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11월 국내 업체의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7조5천516억 원으로 2016년 11월보다 21.7% 증가했다.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7조 원을 돌파한 것은 2001년 집계를 시작한 후 처음이다. 모바일 쇼핑액의 전체 온라인 쇼핑 비중도 크게 뛰었다. 2014년 12월 전체 온라인 거래 가운데 40.4%의 비중을 보였으나, 매년 증가해 지난해 4월에는 60.3%를, 11월에는 62.7%를 기록했다.

온라인 및 모바일 쇼핑 거래액



자료: 통계청

행복한 일터

삼.소.해

인재양성소

KPMG Tour

Talk+Play+Love

행복충전소

Culture & Etiquette

KPMG Story

Samjong News



삼정인, 소개해주세요!

그때 그 시절! 삼정인의 추억을 담은 졸업 사진은?

<삼.소.해>는 '삼정인, 소개해주세요!'라는 의미로, 매월 다양한 주제를 선정해 삼정인이 직접 소개하고, 참여하는 신규 칼럼이다. 2월호는 졸업시즌을 맞이하여, '삼정인의 추억을 담은 졸업 사진'을 공개하며 그때 그 시절을 떠올려 본다.



1989년 2월 광고산 자락에서

꿈 많던 시절, 내 꿈은 현재로 진행형! 김철수 상무 (TAX)

어느덧 30여 년 전이 된 2월의 어느 날, 국세 공무원으로의 임용을 앞둔 꿈 많던 20대 시절이 내게도 있었다. TAX를 이론적으로만 공부해, '실무에서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함 두려움과 동시에 시작에 대한 설렘이 떠오른다. 그리고 공무원으로서의 23년, 로펌과 회계 법인 전문가로서의 6년여의 세월이 훌쩍 지나가 버렸다. "과연 지금의 내 모습은 30여 년 전 내가 꿈꾸었던 모습인가?" 생각해봤지만, 아직 내 꿈은 현재 진행형인 듯하다.

함께 꿈꾸고, 삼정인이 된 우리들! 이정훈 Associate (ICE1)

사진 속 우리들은 2013년부터 같이 회계사 공부를 시작해서 고시반에서 동고동락 하며 힘든 시간을 같이 보내왔습니다. 사진 속 가운데 형은 2015년에, 왼쪽의 저는 2016년에, 오른쪽의 친구는 2017년에 순차적으로 회계사 시험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공교롭게도 세 명 다 삼정KPMG에 입사하여 같이 법인생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같은 학교의 같은 과를 졸업하여 모두 같은 법인을 다니는 건 정말 인연이 아닌가 하는 말을 셋이서 자주 나누곤 합니다.



2017년 2월 대학교 졸업식,
이정훈 Associate/ 손민철 Analyst/ 오종원 Associate



뉴질랜드에서 보낸 고등학교 졸업사진

졸업 사진을 보며 느낀 것, '이 시간에 충실하자!' 이지원 Associate (TP)

뉴질랜드 고등학교 시절의 졸업 사진입니다. 졸업 후 큰 지진으로 인해 제가 살던 도시와 학교의 반이 무너져 없어졌어요 이 경험으로 '항상 이 시간에 충실하자!' 라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부터 지금 이 순간이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여정이라는 것을 매일매일 새로 다짐하고 감사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2월에 졸업하는 삼정인 여러분 졸업 축하드립니다. 우리 모두 항상 기쁨으로 최선을 다하길 바랄게요!"

졸업 축하합니다!

졸업 삼정인의 10년 뒤의 모습은?

빛나는 졸업장을 품에 안는 졸업의 달 2월이다. 이번 호에서는 찬란한 대학 시절을 보내고 새롭게 삼정KPMG와 함께 사회인으로 성장할 새내기 삼정인을 만났다. 새로운 시작을 앞둔 이들의 남다른 각오와 함께 10년 뒤 모습을 미리 상상해보았다.



초심 잃지 않고 항상 노력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박광훈 Analyst (Deal Advisory1)

길고 긴 대학생이라는 신분을 이제 마치게 된다고 생각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남들보다 뒤늦게 사회에 발을 디게 되는 것 같아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도 앞섰지만, 그래도 대학생이 아니면 해볼 수 없었던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었기에 후회는 없습니다. 첫 사회생활을 삼정KPMG에서 시작하게 되었는데, 초심자의 마음으로 무엇이든 부딪히며 배운다는 심정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풋내기 회계사에 불과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당당히 한몫을 하는 전문가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10년 뒤의 모습을 상상해보면, 저는 익숙함에 매몰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워크숍에서 동기들과 바이(V)!



언제나 힘이 되는 신임 동기들과 함께

존경받는 선배가, 또 가정에 충실한 가장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박기범 Consultant (MCS2)

대학생 시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꿈을 향해 공부만 하는 것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지 학교를 다닐 때는 졸업만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졸업하니 아쉬움도 남습니다. 그래도, 삼정KPMG에 입사하며 하고 싶던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좋은 선배님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학생 때의 아쉬움을 떨쳐내고, 열심히 일하고 배워서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어 사회를 이끌어 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10년 뒤에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PM이 됐으면 합니다. 또한, 지금의 저와 같은 위치에 있을 후배들에게 진심 어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선배가 되고 싶고, 가정에 소홀하지 않은 가장이 되어있으면 좋겠네요.

10년 후, 소통하고 신뢰받는 전문가가 될래요!

차지혜 Analyst (Deal Advisory2)

설렌 마음으로 입학했던 순간이 엇그제 같은데, 어느새 졸업입니다. 친구들과 소중한 추억을 쌓고, 많이 고민하며 스스로 성장하게 해준 학교에 고맙습니다. 아직은 사회인이 된 제 모습이 낯설고 새로운 동시에 앞으로 펼쳐질 삼정KPMG에서의 생활이 기대됩니다. 그리고 많은 선배님들을 본받아, 저도 언젠간 진정한 전문가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제 목표는 삼정KPMG에서 소통하고 신뢰받는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는 자세로 전문 지식을 발전시켜 나가고, 주변 사람들과 활발히 교류할 계획입니다. 10년 후에는 이 목표에 조금이나마 가까워진 제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추억이 될 대학교 졸업사진



글로벌 역량과 노하우로 차별화된 전문가로 거듭나기를

정민주 Associate (IM1)

입학한 지 7년 만에 졸업하게 되어 너무 기쁘고 추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늦잠을 자서 지각했던 입학식, 학교 근처 PC방에서 혼자만 흰 화면이 떠서 망쳐버린 첫 학기 시간표, 학교생활의 후반부를 함께한 집보다 오래 머물렀던 고시반까지, 저에겐 모두 잊지 못할 추억들입니다. 그런 학교를 떠나 사회인으로서 첫발을 삼성KPMG에서 내딛게 되어 영광입니다. 처음엔 항상 낯설고 힘든 순간들이 찾아오기 마련인데, 배우고자 하는 자세로 매사에 긍정적으로 임하겠습니다. 10년 후에는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KPMG의 다양한 해외 업무 경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또 그러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저만의 차별화된 전문 영역을 가진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휴게 라운지에서 일하다
잠시 스마일~!



언제 어디서나,
업무 열정 가득한 모습



삼성KPMG 명성에 걸맞은 회계사가 될 것

김흥기 Associate (IM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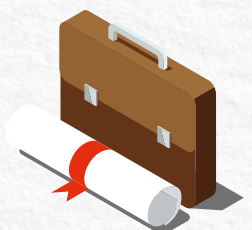
20대 시절의 우여곡절을 함께해준 정든 울타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길었던 여정의 끝을 회계사 시험 합격과 삼성KPMG 입사로 마무리할 수 있어 기쁩니다. 아직은 정장에 넥타이를 매고 출근하는 제 모습이 어색하기도 합니다. 학생의 신분을 벗어나 사회의 일원으로서 또한 회계사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주어진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초심을 잊지 않고, 배우의 자세로 삼성KPMG의 이름에 걸맞은 회계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년 후에는 물음표 가득한 머리로 노트북과 씨름하고 있는 지금의 저를 돌이켜보며 여유 있는 웃음을 지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받는 전문가, 또 스스로 존경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건희 Associate (B&F2)

대학생으로서 더 많은 경험을 하지 못한 것이 아쉽지만, 힘든 수험 생활을 거쳐 회계사 시험 합격이라는 특별한 선물을 안고 졸업하게 되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사회인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삼성KPMG와 함께할 수 있어 기쁩니다. 아직은 학생 티를 벗지 못해 사회인으로서 부족한 점도 있지만 좋은 선배님들, 동기들과 더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배워야 할 것들이 많지만, 대학 때의 도전 정신과 수험 생활 때 다졌던 의지를 되새기며 유능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10년 뒤 모습을 그리려니 막연하기만 합니다. 10년 뒤 제가 어느 자리에 있을지, 누구와 함께 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면서 함께하는 누군가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또 스스로를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속수무맹한 제 실력
한 장 펼치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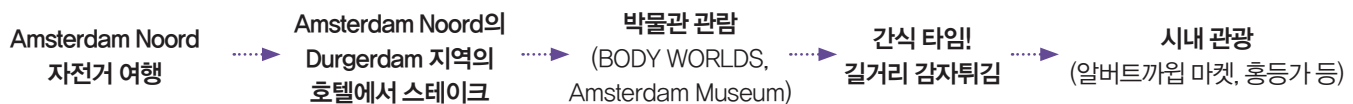


이동규 S.Analyst가 전하는 암스테르담 여행기 자연 친화적인 도시, 암스테르담으로 Go!

고흐의 나라이자, 풍차의 나라 네덜란드. 우리에게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를 만들어준 히딩크 축구 감독의 나라이기도 하다. 네덜란드의 수도 암스테르담을 여행하고 돌아온 이동규 S.Analyst(Deal Advisory3)가 삼정KPMG 가족을 위해 생생한 여행 후기를 들려줬다. 그가 전하는 암스테르담의 매력 속에 폭 빠져보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1day 여행



자연과 이색 문화를 마주할 수 있는 도시, 암스테르담

지난해 5월, 3박 4일로 아름다운 나라 네덜란드의 도시 암스테르담으로 여행을 다녀왔다. 5월은 화창한 봄이라서 네덜란드를 여행하기가 가장 좋은 시기였다. 네덜란드는 관광 및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 중 영어 숙련도가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여행 전 많은 준비 없이 떠나도 이국적인 유럽 도시와 자연환경을 경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더블 아이리시 위드 어 더치 샌드위치'(Double Irish with a Dutch Sandwich)와 같은 유명한 조세 전략을 가능케 하는 세법을 가진 나라답게 관광객 이외에도 상당수의 외국인 근로자를 볼 수 있었다. 친분이 있는 한국 Big4 회계법인 출신 회계사도 암스테르담 소재 Member Firm에서 직접 고용형태로 일하면서 상당히 만족스럽게 지내고 있다고 한다. 조금 멀긴 하지만, 백팩과 가벼운 마음으로 여행 다녀올 수 있는 네덜란드를 삼정KPMG 가족에게 소개해 주고 싶다. 무엇보다 색다른 자연에서의 휴식과 합법적인 홍등가 운영, 마리화나 복용 등 어떻게 보면 상식 밖의 각종 문화를 마주하고 이전에 하지 않았던 질문과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길 추천한다.

■ 암스테르담 즐길 거리 TOP 3

① 네덜란드의 자연을 만끽하는 자전거 여행

암스테르담은 자전거와 친화적인 도시로, 2016년 8월 기준 약 88만 대의 자전거가 운용되고 있으며 매일 자전거로 이동하는 인구가 58%나 된다. 시내와 시내 외곽 대부분의 주요 도로에 자전거 도로가 구분돼 있으며 자전거 보관소도 장소마다 걸맞은 규모로 설치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자전거 타기에 최적화된 도시답게, 자전거를 대여해 여행하기로 했다. 대여소에서는 자전거 여행을 위한 지도를 제공해주는데, 지도에는 시내



관광지를 통과하는 코스 및 시외를 둘러볼 수 있는 코스가 소개되어 있다. 시외 코스는 길이 단순해서 방향 감각이 좋지 않아도 헤매지 않고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시외 코스 중 암스테르담 북부 지역인 'Amsterdam Noord'를 추천한다. 2시간 코스로 해변가와 주택가를 지나기도 하고, 또 숲길을 지나며 푸른 초원과 가축을 보는 등 자연을 즐기며 자전거를 탈 수 있다. 한 가지 팁은 자전거를 타며 지나는 작은 동네마다 특별한 분위기를 지닌 가게에 들리는 것을 추천한다. 작은 동네 가게에서 따뜻한 커피도 한잔하고, 식사도 하며 여유를 갖고 여행하다 보면 그 도시를 온전히 느낄 수 있다.

② 골라 보는 재미가 있는, 네덜란드 박물관

암스테르담은 총 44개의 다양한 종류의 박물관이 있어 개인의 취향에 맞게 고를 수 있다. 나는 그 중 시내에서 열리는 BODY

WORLDS: The Happiness Project 및 Amsterdam Museum을 다녀왔다. 인체 표본을 전시하는 BODY WORLDS는 한국에서 접하지 못하는 특별한 전시물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보니 다소 충격적인 전시물이 많았다. 특히 연령 제한이 없어 아이들도 관람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Amsterdam Museum은 옛 고아원 건물로, 중세시대부터의 암스테르담 역사와 이야기를 볼 수 있는 교육적인 박물관이었다. 네덜란드를 여행한다면 박물관 투어에 나서는 것도 재미있으니 추천한다. 네덜란드의 최고 미술관이자 관광명소, 반고흐 미술관, 람브란트와 베르메르 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암스테르담 국립 미술관 등 취향에 맞게 관람을 즐기길 바란다.

③ 암스테르담만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시내 구경

165개의 운하가 있는 시내에는 특정 구역이 아니더라도 암스테르담 특유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곳곳에 자동차 핸들보다 큰 치즈를 파는 가게에서 다양한 치즈를 시식해보고, 작은 길거리 베이커리에서 맘에 드는 빵을 하나 사 먹으면서 시내를 구경만 해도 충분히 즐거웠다. 시내가 아주 크지 않아 주요 관광지인 알버트 까융 마켓(Albert Cuypmarkt)도 마주치게 되어 이것저것 구경하며 기념품도 장만했다. 시내를 구경하다 보면 간간히 보이는 카페가 사실 일반적인 커피 가게가 아닌 대마초를 팔 수 있는 장소라고 하는데 지나가다 보면 좀 어둡고 심한 냄새가 나서 들어가 보지는 못했다. 그 유명한 홍등가도 지나가게 되었는데 낮이고 관광객이 많은지라 선정적인 문구가 쓰여진 가게가 있었지만, 홍등가 느낌이 많이 나지 않았다.

이동규 S.ANALYST가 전하는 여행 꿀 TIP

1. 맑은 날보다는 비바람이 부는 날이 많고 맑은 날 중에도 날씨가 급변할 수 있으니 따뜻한 옷과 바람과 비를 막을 수 있는 겹옷은 필수다.

2. 일반적으로 다른 유럽의 도시보다 숙소 가격이 비싼 편이기에 호스텔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단, 호스텔 사용 시 너무 저렴한 곳보다는 비교적 높더라도 시내에 가까운 위치의 호스텔을 추천한다.

3. 색다른 경험을 위해 자전거 택시를 타는 것도 좋다. 시내에서 길을 찾기 위해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길을 물었지만, 90%가 관광객이라 결국 찾지 못했다. 하느 수 없이 자전거 택시를 탔는데, 생각보다 속도가 빨라서 상쾌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다. 이색적인 경험이었다.

4. 북부지역에 가려면 페리를 약 5분 타고 가야 한다. 하지만 가격도 무료인 데다가, 약 5~10분마다 배차되어 있고 24시간 운영되기에 전혀 부담 없이 이동할 수 있다.



딸기 생크림 케이크 만들기 우리들의 아름다운 추억 한 조각!

대학 시절부터 지금까지, 소중한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삼정인이 있다. 이들은 대학 고시반 시절부터 지금까지 힘든 과정을 견디고 마침내 삼정인이 되어 행복한 추억을 나누며 성장하고 있다. 베이킹 클래스로 소중한 추억을 하나 더 만들었다는 이들의 이야기를 남한솔 Analyst가 들려준다.



대학교에서부터 삼정KPMG까지 이어온 소중한 인연!

삼정KPMG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에 입사한 신입 회계사 남한솔입니다. 이번 'Talk+Play+Love'에 참여한 윤형주, 박예지, 윤종석 회계사는 서로의 잊고 싶은 모습까지 모두 다 알고 있는 대학교 시절을 함께 보낸 동문이에요. 대학 시절부터 회계사라는 같은 꿈을 꾸었고, 고시반에서 함께 공부하며 24시간이 모자랄 만큼 붙어 지냈어요. 힘든 수험생활이었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며 주말에는 맥주 타임을 하던 그 시절이 지금은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겨졌네요. 이제는 그 꿈을 모두 이루었고, 저와 윤종석 회계사가 2017년에 입사하면서 대학 시절의 인연을 삼정KPMG에서도 이어오고 있어요.

삼정인으로 함께 일하며 자주 만나 모임도 갖고 있는데요, 서로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을 해보자는 의미로 'Talk+Play+Love'에 참여하게 됐어요. '우리 사연이 선정될 수 있을까?'라며 기대도 안 했는데, 이렇게 기분 좋게 선정되어 베이킹 클래스에 참여하며 오랜만에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힘든 만큼 보람 있었던 생크림 케이크 만들기!

유난히도 눈이 많이 내리던 주말, 베이킹 클래스를 위해 왕십리에 있는 '케익칸'이라는 곳에 방문했어요. 우리는 딸기 생크림 케이크를 만들기로 했는데요, 처음에는 그저 잘 만들어진 빵 위에 생크림을 바르고, 딸기를 장식하면 쉽게 완성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스펀지 빵 만들기부터 생크림까지, 완전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하는 어마어마한 일이었어요.

먼저, 케이크의 시트 역할을 하는 스펀지 빵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계란노른자와 밀가루를 넣고 섞다가, 중간에 버터를 넣고 아이보리색이 될 때까지 잘 섞어주었어요. 이 과정이 촉촉하고 맛있는 케이크를 결정짓는 중요한 과정이더라고요. 우리는 팔이 아프도록 반죽을 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븐에 넣었죠. 누구의 스펀지 빵이 가장 예쁘고, 맛있게 나올지 서로 기대하는 모습이 재미있었어요. 한데 그 이후에도 우리들의 케



Deal Advisory2 박예지 S.Analyst, ICE2 윤종석 Associate, B&F2 윤형주 Senior, Deal Advisory5 남한솔 Analyst



이크 만들기 여정은 쉽지 않았어요. 스펀지 빵에 생크림을 감싸기 전에 나무판에 연습하는 것만 1시간을 했고, 이러한 과정에서 서로 좌절과 격려를 반복하다 장장 5시간에 거쳐 완성하게 됐죠. 그래도 완성된 케이크를 보니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 하지만 역시 늘 잘하는 사람이 잘한다고, 모든 면에서 늘 뛰어났던 예전 선배가 가장 잘 만들어서 모두 부러워했어요. 하하.

우리 함께라면 ‘더할 나위 없겠다’

그동안 베이킹 클래스를 떠올리면 우아한 취미 활동처럼 보였는데 베이킹에 참여해보니 과정이 너무 힘들어 역시 세상에 쉬운 건 없다는 걸 다시 깨닫게 됐어요. 그래도 모두 훌륭한 케이크를 가져갈 수 있어서 다행이었고, 무엇보다 베이킹을 하며 넷이서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고 예전 학창시절 추억을 공유할 수 있어서 가슴 따뜻한 하루였던 것 같아요. 이번 ‘Talk+Play+Love’를 통해 우리들의 추억을 한 층 더 쌓아 올리게 되어 정말 기쁘고 이런 기회를 준 삼정 KPMG에 무한 감사함을 전합니다. 그리고 함께라서 더욱 즐거웠기에, 좋은 추억을 만들어준 동료들에게도 고맙다고 전하고 싶어요. 끝으로 동료들에게 이 말 전하며 마무리할게요. “다시 떠올리기 싫을 만큼 힘들었던 그때를 지나 대한민국의 회계 업계를 선도하는 삼

정KPMG에서 다시 만나니 감회가 참 새로워! 같은 회사지만, 본부가 달라 자주 만나지는 못하겠지? 우리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만큼은 늘 함께라 생각하고 언제 어디서든 우리 모두를 응원할게.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후에 또 다른 시련과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그 시절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의지하며 잘 버텼듯이 앞으로도 서로서로 힘이 되어 주며 잘 헤쳐나갈라 믿어 의심치 않아! ‘파이팅’이라는 말보다 고생했던 우리를 회상하며 드라마 ‘미생’의 대사로 갈음하려 해. ‘더할 나위 없었다. yes!’ 함께 해줘서 고마워 앞으로도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자.”

케익퀸

120년 전통의 프랑스 요리학교 르 꼬르동 블루 출신의 전문 강사가 직접 알려주는 베이킹 스쿨로, 초보자부터 상급자까지 단계별 베이킹 클래스를 들을 수 있다. 또한 원데이 클래스, 취미반도 있으니 가족, 연인, 친구들과 함께 특별한 케이크를 만들기에 좋은 곳이다.

■ 주소: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8가길 2

■ 문의: 02-2295-5533

워라밸 지키며 행복 만드는 삼정인!

바쁘게 지내다 보면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잊고 지낼 때가 많다. 특히, 가족과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의 시간에 소홀하게 된다. 삼정KPMG는 삼정인들이 워라밸(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를 위해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삼정인들이 경험하고 느낀 행복한 순간을 지금부터 살펴보자.



삼삼오오

2년 차 회계사로서 새 각오를 다졌던 날! 권호유 Analyst (Deal Advisory1)



이번 모임은 각자 다른 본부에서의 Pooling 경험을 공유하고, 2년 차 회계사로서의 각오를 함께 다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지난 5개월 간 각각 서로 다른 본부에서 일하며 새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부동산 가치평가를 하며 밤새 미숙한 파워포인트 작업과 씨름한 이야기, 금융 회사에 처음 나가 처음 들어보는 계정에 대해 공부해가며 고생한 이야기, 비시즌에 용역에 투입되어 시즌보다 힘든 비시즌을 보낸 이야기, 일본어 계정을 번역해가며 감사절차를 수행하느라 힘들었던 이야기 등을 나누었습니다. 다들 각자의 곳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배웠던 경험을 공유하며 그동안 많이 성장했다는 것을 느꼈던 한편 부족했던 부

분들도 많이 떠올라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1년 후 이맘때쯤에는 더욱 성장하여, 윗사람에게는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는 시니어, 아랫사람에게는 이것저것 물어보고 따르고 싶은 시니어가 되자고 다짐하며 모임을 마쳤습니다.

‘기말 시즌 파이팅!’을 외치며 에너지 UP 김형원 Associate (ICE1)

삼삼오오 프로그램 덕분에 동료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사실, 기말 시즌 업무가 시작해 서로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웠으나, 주말 근무 중 잠깐 시간을 내어 만났습니다. 식사를 함께하며 서로의 안부를 나누고 기말 시즌을 응원했습니다. 주로 휴가 계획 및 재테크 그리고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이를 통해 정보 교류와 협업을 위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휴가 계획들을 나누며 기말 시즌을 마치고 찾아올 그 시간을 그려보며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삼성KPMG는 임직원들의 Work & Life Balance를 증진시키고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하여 가족, 동료들과 함께할 수 있는 '부모님을 뵙니다', '아빠&엄마가 간다', '삼삼오오', '리무진 서비스'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 중입니다.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PPC 강경아 대리 (kyungahkang@kr.kpmg.com)에게 문의 주시기를 바랍니다.

리무진 서비스

아내와 첫 결혼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이혁진 S.Consultant (BCS-SCG1)



법인에서 제공하는 좋은 제도 덕분에 아내에게 '멋진 남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첫 결혼 기념일을 위해 특별히 '리무진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오후 1시, 예약한 시간에 맞춰 집 앞으로 리무진이 도착했고, 친절한 기사님 덕분에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드라이브를 즐겼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용산에 새로 생긴 한 호텔이었는데, 이 호텔 역시 법인과 제휴를 맺은 곳으로 합리적인 금액으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로 아내에게 '좋은 회사'에 다닌다고 자랑할 수 있어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부모님을 뵙니다

17년 만에 한국에서 맞이한 아버지 생신을 위해! 이수영 Senior (B&F2)



1999년 8월 15일, 어머니의 교육열로 인해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우리가족 모두 필리핀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의 교육을 모두 마무리 한 2017년 부모님은 한국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후 첫 아버지 생신을 맞아 무엇을 해드릴까 고민하다 '부모님을 뵙니다'를 신청했습니다. 며칠 전, '신과 함께' 영화를 본 후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또 잘 해드리지 못했던 것만 떠올라 앞으로는 부모님께 효도하며 사는 딸이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회사 덕분에 부모님께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해드려 행복했습니다.



기회의 땅, 베트남 문화와 에티켓

중국을 대체할 '포스트 차이나'로 떠오른 베트남. 이는 중산층이 늘어나면서 소비 시장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베트남 정부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 적극 노력과 외국 기업 배려는 베트남을 '기회의 땅'으로 만들었다. '기회의 땅'으로 많은 한국 기업이 진출한 베트남의 문화와 비즈니스 에티켓을 하노이 Korea Desk 박송학 Manager가 소개한다.



1가정 1오토바이

거리는 온통 오토바이 세상!

베트남에 처음 도착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도로에 있는 가
지각색의 오토바이 행렬이었습니다. 대중교통이 발달되지 않은 관계
로, 베트남 사람들은 이동 수단으로 오토바이를 많이 이용합니다. 특
히, 정부의 높은 관세 정책으로 자동차의 가격은 한국의 2배 이상으
로 비싸며, 도로 사정이 좁고 복잡하여 베트남 사람들에게는 오토바
이가 생활에 더욱더 유용한 수단으로 자리 잡아 있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 젊은 학생들부터 백발의 노인들까지 각자의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가끔은 남편, 아내, 어린 자식
들까지 3~4명의 가족이 한 대의 오토바이에 타고 가는 모습을 볼 때
면 가슴이 조마조마하면서도 매우 신기합니다.

각 가정에 1대 이상의 오토바이를 보유하고 있는 베트남이지만 교통
법규를 지키는 수준은 매우 낮습니다. 자동차보다는 유연한 운행이
가능하다 보니 신호 무시는 물론 인도로 주행하는 일도 서슴지 않습
니다. 심지어는 역주행 하는 오토바이에 놀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신기한 점은 이러한 무질서 속에서도 사고가 자주 일
어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길이 좁고 오토바이가 워낙 많다 보니 속
도를 위험한 수준으로 낼 수 없고, 각자 경적과 라이트로 서로의 의사
를 전달합니다. 베트남에서 경적을 울린다는 것은 나를 알리는 수단
이고,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시내에서 경적을 울리
는 행위는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이 때문에 베트남의 거리는 매우 시
끄럽고 혼란스러워 처음 베트남을 방문하면 많이 당황스러울 수 있
습니다.

이것만은 꼭! 베트남 Etiquette Plus+

1 친한 사이라도 어깨동무는 No!
베트남은 친한 사이라도 어깨
동무를 해서는 안 된다. 어깨동
무뿐만 아니라 어깨에 손을 대는 행동
조차도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베
트남 사람들은 어깨에 그 사람의 수
호신이 머물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
이다. 길을 걸을 때도 어깨를 부딪치
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숟가락은 식탁 위에
얹어 놓아라!
우리나라에서는 숟가락을 얹
어 두는 것을 '복이 나가거나, 재수 없
는 행동'이라고 여기지만, 반대로 베
트남에서는 숟가락을 식탁 위에 얹어
두는 것이 풍습이다.





1. 하노이 거리를 가득 채운 오토바이 2. 자연이 빚어낸 최고의 걸작품 중 하나로 꼽히는 베트남 하롱베이 3. '뭇 하이 바 요!' 동료들과 함께 맥주를!

자유롭고 수평적인 직장 문화...점심시간에는 낮잠도!

대부분의 열대지방 사람들과 같이 베트남 사람들도 여유로운 모습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급하지 않으며, 잔업이 있더라도 업무 시간이 끝나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퇴근합니다. 또한 점심 시간에 낮잠을 자는 문화가 있어 사무실 곳곳에서 자는 풍경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가끔 집에 가서 낮잠을 자고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이러한 문화들은 베트남의 직장 문화의 자유로움과 개방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회사 내의 호칭의 경우에도 직급이나 존칭보다는 한국의 형, 오빠(Anh) 언니, 누나(Chi) 동생(Em)처럼 단지 나이의 높고 낮음에 따른 호칭으로 상대방을 부릅니다. 직장에서의 관계 역시 매우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분위기입니다.

“뭇 하이 바 요!” 맥주를 좋아하는 사람들

베트남은 무더운 나라인 만큼 시원한 맥주를 자주 즐깁니다. 길거리

를 지나가다 보면 작은 목욕탕 의자에 삼삼오오 모여 앉아 맥주를 마시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안주를 풍성하게 시키고 상대방의 잔이 비우기 전에 잔을 채워주는 것이 하나의 음주 문화입니다. 또한 베트남 사람들은 건배사를 매우 즐기는데 술자리의 분위기를 돋우기 위해서 의자에서 모두들 일어나 큰소리로 “뭇 하이 바 요!(하나 둘 셋 마시자!)”를 목청껏 외칩니다. 이 소리는 주변 테이블에서도 매우 크게 들리지만 다들 신경을 쓰지는 않습니다. 처음 이 건배사를 들었을 때는 다른 테이블에 피해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했으나, 얼마 안 돼 동료들과 함께 크게 소리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CONTACT US

베트남 하노이 KOREA DESK 박송학 MANAGER

Tel. +842439461600 E-mail. hakpark@kpmg.com.vn

Global Etiquette



3 '반터'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것이 예의

베트남 사람들은 조상을 매우 극진히 숭배하며, 평상시에도 집 안에 제사상을 차려 놓는다. 베트남 사람들이 집 안에 차려 놓는 제사상을 '반터'라고 한다. 이에 베트남 가정을 방문했을 경우, '반터' 앞에서 잠깐 고개를 숙이는 것이 예의다.

출처: 『글로벌 에티켓 1』
글 박동석, 출판사 꿈꾸는 꼬리엔



베트남 Korea Desk

KPMG 베트남은 호치민(1군, 7군), 하노이, 다낭 그리고 캄보디아의 프놈펜에 각각 오피스를 두고 있습니다. 베트남 Korea Desk는 2011년부터 호치민 오피스에서 운영되다가, 최근 베트남의 북부 지역에 많은 수의 한국 기업들이 진출함에 따라 2017년부터 하노이 오피스와 호치민 오피스에 각각 Korea Desk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하노이와 호치민 Korea Desk는 회계감사, 세무, 법률, Advisory 서비스에 대해 한국 기업과 KPMG 베트남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돕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이뤄갈 수 있도록 KPMG 베트남과 Korea Desk는 함께 협업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Living the 7 Values!

Values: What we believe in

KPMG Story의 Values는 '우리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일할 것인가'를 이야기한다. 모든 구성원들이 우리의 핵심가치를 이해하고 각자의 방식으로 업무와 생활에 7 Values를 적용하는 것, 이것이 KPMG가 전 세계에 일관된 문화를 구축하는 방법이다.



전 세계 KPMG 가족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행동 양식 7 Values에 대해 알아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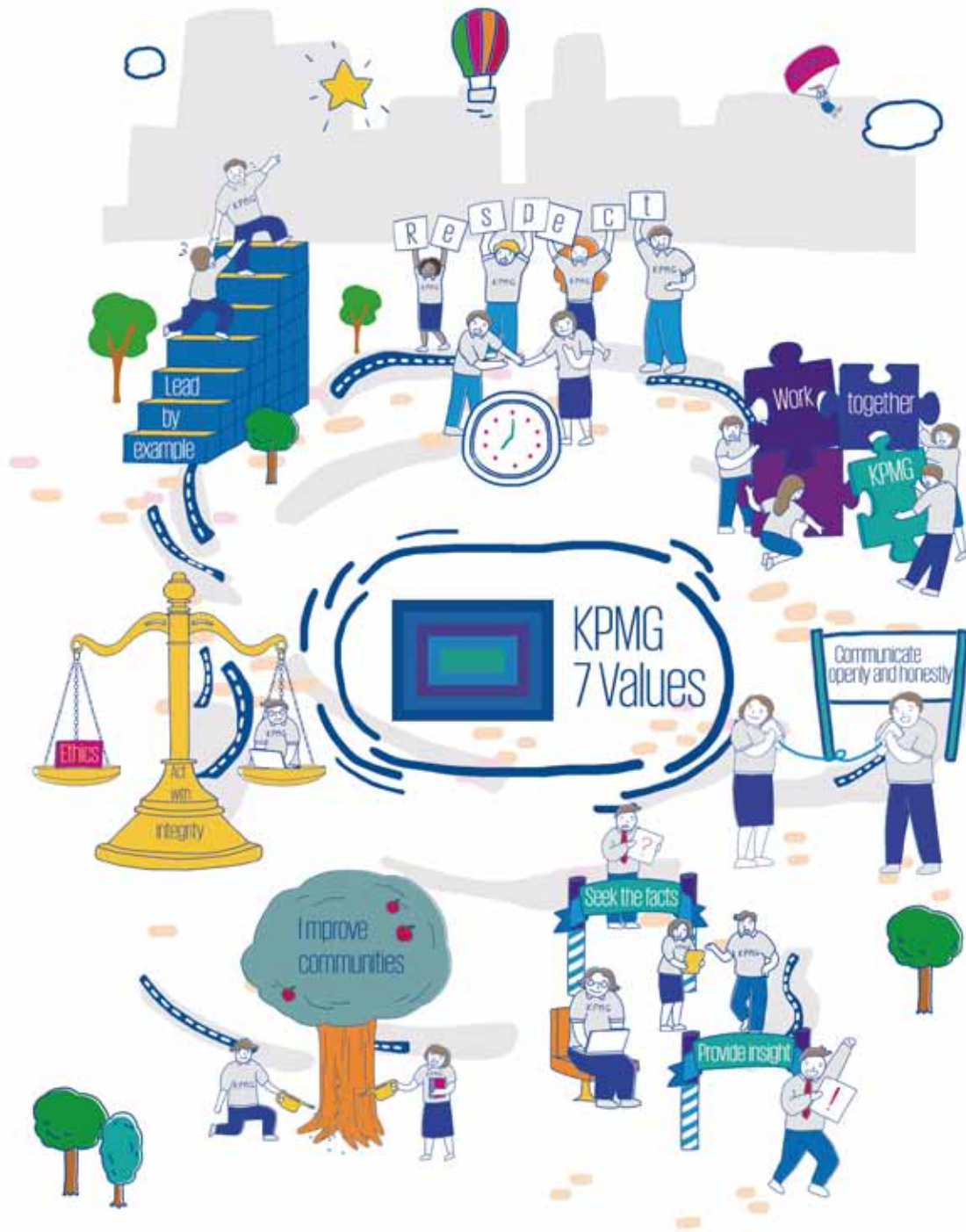
‘핵심가치(Core Value)’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가이드하는 구심점으로서 불확실한 것에 의미를 더해주고 이 과정에서 전략적 목표를 설정해준다. 또한 조직 구성원들의 본질적이고 지속적인 경쟁력의 원동력이 된다. 주변 상황이 복잡하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기 쉽지만, 그때마다 ‘핵심가치’는 자신의 본래 모습을 잃지 않고 지속해 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러한 ‘핵심가치’를 발견하고 내재화하는 것은 자기혁신에 매우 중요한 일이다. KPMG 구성원들이 자기혁신을 통해 개인과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핵심 가치가 바로 7 Values이다.

What are KPMG's 7 Values?

Lead by example 솔선수범 전문가적 자부심을 바탕으로 열정과 책임을 다하여 모두에게 모범이 된다.	Work together 협업 조직 간의 장벽을 낮추고 정보 공유와 협력을 일상화하여 삼정KPMG 전체의 성공에 이바지한다.	Respect the individual 존중 구성원의 인격과 다양성을 인정하고, 개인의 성장을 배려한다.
Act with integrity 정직성실 원칙과 기준을 준수하고 Quality service를 제공한다.		
Improve communities 공헌 전문가적 책임을 바탕으로 사회에 헌신한다.	Communicate openly and honestly 소통 개방적 사고를 바탕으로 명확한 의사전달과 적극적인 피드백을 한다.	Seek the facts and provide insight 통찰력 변화하는 경영 트렌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문가로서의 선제적 방안을 제시한다.

Living the 7 Values

전 세계 KPMG의 다양한 구성원을 하나로 응집해 The Clear Choice로 이끌어가는 구체적 방법이 7 Values라 할 수 있다. 7 Values는 구성원들에게 행동하는 방법과 기대되는 바를 알려주고, 주요 의사결정과 판단의 준거를 제공한다. 이러한 Value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한 실천은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고, 조직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보장한다.



Why do we need 7 Values?

7 Values는 내재화되고, 실천되도록 해야 한다. 7 Values가 임직원들에게 업무를 하는 기준일뿐만 아니라, 법인과 개인을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 업무와 생활 속에 7 Values를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생각해보자.

- ☐ 7 Values 중 내 인생의 핵심가치와 가장 부합하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 ☐ 우리 본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실천하는 Value는 무엇입니까?
- ☐ 7 Values를 업무와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NEWS

MONTHLY NEWS

삼정KPMG, 2017 M&A 리그테이블 석권

연합인포맥스·더벨·머니투데이 등 주요 매체 M&A 자문 실적 1위 휩쓸어



1. 머니투데이 '제15회 대한민국 IB대상'에서 '2017 최우수 회계자문상'을 수상한 삼정KPMG. 2. 삼정KPMG는 더벨 리그 테이블 시상식에서 'Best M&A Accounting Advisor'를 수상했다. 삼정KPMG 재무자문 리더 구승회 부대표가 시상식에 참여해 더벨 성화용 대표이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3. 연합인포맥스 '제7회 금융대상'에서 'M&A 재무자문 부문상'을 수상한 삼정KPMG. 법인을 대표하여 Deal Advisory1본부 하병제 부대표가 시상식에 참석했다.

삼정KPMG가 2017 국내 기업 인수·합병(M&A) 리그테이블을 석권했다. 국내 주요 경제지 연합인포맥스, 더벨, 머니투데이에서 진행한 각 시상식에서 회계 및 재무자문 부문상을 거머쥐었다.

지난 1월 24일, 연합인포맥스가 주최한 '제7회 금융대상'에서 삼정KPMG는 'M&A 재무자문 부문상'을 수상했다. 연합인포맥스는 금융 시장에 대한 수준 높은 이해와 국내 산업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훌륭한 기업 인수·합병 재무자문 서비스를 실시해 효율적인 자원 배분에 기여한 공로가 커 이 상을 수여한다고 전했다. 삼정KPMG는 지난 2017년 베스타스자산운용의 프랑스 파리 소웨스트플라자 매입(6천억 원), 독일 베를린 알리안츠 신사옥 인수(4천267억 원) 등 수천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 거래 등을 잇달아 성사시키는 등 재무자문에서 5조3천806억 원의 실적으로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또한, 1월 25일 더벨 '2018 Korea Capital Markets thebell League Table Awards'에서는 'Best M&A Accounting Advisor'를, 1월 26일에 열린 머니투데이 '제15회 대한민국 IB대상'에서는 '2017 최우

수 회계자문상'을 수상해 M&A 회계자문 최강자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2017년 삼정KPMG는 M&A 회계자문에서 가장 두드러진 활약을 뽐냈다. 카버코리아 거래에서(3조 600억 원) 삼정KPMG는 매각 측인 베인캐피탈-골드만삭스 컨소시엄의 자문을 수행하며 단숨에 거래금액 선두에 올라섰다. 카버코리아 매각자문 건은 지난해 해외 기업이 국내에 투자한 M&A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거래였다. 이외에도 제조, 금융, 에너지, 리테일 등 다양한 업종의 M&A 거래자문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한편, 삼정KPMG의 재무부문 리더 구승회 부대표는 "삼정KPMG는 임직원들의 헌신과 노력,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 발전하고 있으며, 이번 M&A 회계 및 재무자문 수상을 통해 그 실력을 인정받은 것 같아 매우 뜻깊다. 무엇보다 지금도 각자의 자리에서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는 삼정KPMG 가족들에게 수상의 영광을 돌리고 싶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삼성KPMG 김교태 CEO, 자랑스러운 성균인상 수상

삼성KPMG 김교태 CEO가 지난 1월 1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GS타워에서 열린 '2018 성균관대학교 총동창회 신년인사회'에서 '자랑스러운 성균인상'을 수상했다. 삼성KPMG 김교태 CEO는 대한민국의 올바른 회계 업계를 선도하고, 경제 발전에 큰 공을 기여함으로써 모교인 성균관대학교의 명예를 드높였기에 이 상을 수여 받았다.



삼성KPMG 장현민 상무, 금융위원회 위원장 표창 수여

삼성KPMG DPP본부 장현민 상무가 우리나라 회계, 외부감사 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금융위원회 위원장 표창'을 수여 받았다. 장현민 상무는 "앞으로도 외부감사 제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 정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스마트팩토리 사이버 보안 전략 세미나' 개최

삼성KPMG는 1월 17일 '스마트팩토리 사이버 보안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삼성KPMG는 스마트팩토리의 보안 위협과 사고 사례를 공유하고 4차 산업 시대의 새로운 보안전략을 제시했다.

* Contact: IA/FR본부 위승훈 부대표 swi@kr.kpmg.com



삼성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감사위원회 저널」 5호 발간



지난 1월, 삼성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는 「감사위원회 저널」 5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코스피 200대 기업의 2016년 사업연도 감사위원회 안건'을 분석한 내용과 삼성KPMG ACI 자문위원인 김일섭 한국FPSB 회장과 손성규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가 각 기고한 '강화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평가와 감사위원회의 역할', '2018 핵심감사제 도입과 감사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내용 등을 담았다. 한편, 주요 기업 감사위원 및 감사들에게 무료로 배포되는 「감사위원회 저널」은 삼성KPMG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제과·제빵 봉사'로, 이웃 사랑 전해



1월 13일 삼성KPMG는 대한적십자 산하 봉사관에서 '제과·제빵 봉사'로 이웃 사랑을 전했다. 연일 이어진 강추위에도 삼성KPMG 임직원과 가족 45명은 토요일 아침부터 봉사관에 모여 빵 만들 준비에 나섰다. 전문 강사의 도움으로 밀가루 반죽부터, 오븐에 빵을 굽고, 예쁘게 포장해 완성했다. 정성껏 만든 빵은 봉사관 근처의 독거노인 가정과 노숙자 쉼터에 전해 따뜻한 사랑을 선물했다.

NEWS

Trusted Advisor 육성을 위한 FY17 Advisory 교육 진행

고객과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전문가로 UP!

‘Our people are EXTRA-ordinary, Advisory Fundamentals’

삼정KPMG는 Trusted Advisor 육성을 위한 Advisory 교육을 진행했다. 신뢰받는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한 첫 단계인 ‘Advisory Fundamentals’ 교육은 ‘Knowing KPMG Advisory’, ‘Becoming a Trusted Advisor’, ‘Improving Interpersonal Skills’, ‘Understanding Business Fundamentals’의 목표 하에 3일간 진행됐다.

다양한 팀 활동, 현업 선배들의 강의, 선배와의 대화 세션 등을 통해 컨설팅 업무의 본질과 Advisor로서의 역할 및 책임을 이해하고 법인에서의 비전을 구체화했다. 또한, 급변하는 산업 트렌드를 알아보며 Professional로서 넓은 시각을 함양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53명의 Advisory 신입 동기들은 팀 빌딩 네트워킹 활동에 참여하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는 시간을 가졌고, 본부별 전문 업무 영역을 서로 이해하며 법인에 대한 신뢰와 자부심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

‘나의 Comfort Zone을 뛰어넘는 도전의 기회!’, Advisory 1, 2

KPMG Global 과정인 ‘Advisory 1(Enhancing Value for Clients)’, ‘Advisory 2(Managing Advisory Engagements)’ 교육은 KPMG Global 강사가 국내에서 직접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참여한 학습자들은 실제 프로젝트 케이스를 기반으로 업무 계획 수립, 고객 인터뷰, 최종 프레젠테이션 등을 실습하며 Senior Advisor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본 과정을 진행한 ASPAC Facilitator는 “삼정KPMG 컨설턴트들의 열정과 교육 기간 중 보여준 뛰어난 몰입과 향상된 모습에 큰 감동을 느꼈다.”고 말했다.



1



2



3



4



5

1, 2, 3. [Advisory Fundamentals] ‘Journey to become a Trusted Advisor’ 4. [Advisory 2] ‘Enhancing key leadership skills’ 5. [Advisory 1] ‘Understanding of the client expectations of an Adviser’

Junior를 위한 사내 특강 ‘나를 바꾸는 시간’ 진행

‘관점을 바꾸면 미래가 바뀐다’



삼성KPMG는 Junior 직급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 강사를 초빙해 사내 특강을 진행했다. 지난 1월 4일 역삼동 삼성KPMG 본사 Vision/Purpose 룸에서 ‘관점을 바꾸면 미래가 바뀐다’는 주제로 박용후 관점 디자이너의 특강이 열렸다. 일과 삶에 대한 관점을 새롭게 바라보는 시각을 주고자 마련된 교육으로,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이번 강연에서는 2018년 새해를 맞이하여 인생과 관점을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 ‘오늘’의 가치를 찾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도 삼성KPMG는 Junior들을 위한 ‘나를 바꾸는 시간’ 특강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일과 삶의 가치를 찾아가는 멋진 삼성KPMG 가족이 많아지기를 기대해본다.



삼성인 한마디! “나를 바꾸는 시간 강연 어땠나요?”

내 인생에서 ‘어떻게 관점을 바꿀까? 관점이 바뀐다면 무엇이 바뀔까?’ 기대할 수 있어 기분 좋았던 강연이었습니다.

시각을 좀 더 넓게 바라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나를 바꾸는 시간’ 강의로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어요!

법인의 대다수 교육이 업무 관련 교육이지만, 이번 특강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내용이 아니라는 점에서 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들었어요. 우연한 기회로 들었는데 생각을 일깨워 주었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나의 직업에 대한 가치와 ‘오늘’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Good!

The KPMG Story

The KPMG Story는 KPMG가 왜 존재하고(Purpose) 어떤 가치 속에 일하는지(Value), 무엇을 지향하고(Vision) 이를 위해 어떻게 나아가며(Strategic) 그 과정 속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Promise)를 명확히 보여주는, 일상 행동과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한 일관된 지침이다.

This is KPMG and
this is our story

| This is why we're here

Inspiring Confidence
Empowering Change
신뢰를 부여하고
세상의 변화를 주도한다

This is our Purpose

| This is what we believe in

- Lead by example 솔선수범
- Work together 협업
- Respect the individual 존중
- Seek the facts and provide insight 통찰력
- Communicate openly and honestly 소통
- Improve communities 공헌
- Act with integrity 정직성실

These are our Values

| This is what we want to be

The Clear Choice:

- Our people are extraordinary
- Our clients see a difference in us
- The public trusts us

This is our Vision

| This is how we'll get there

We will:

- Drive a relentless focus on quality and excellent service
- Take a long-term, sustainable view
- Act as a multi-disciplinary firm, collaborating seamlessly
- Invest together in our chosen global growth priorities
- Continuously improve quality, consistency and efficiency
- Maintain a passionate focus on our clients
- Deploy globally our highly talented people
- Bring insights and innovative ideas
- Build public trust

This is our Strategy

| This is how we want the world to see us

With passion and purpose, we work shoulder-to-shoulder with you, integrating innovative approaches and deep expertise to deliver real results.

This is our Promise

삼성 KPMG

독자 여러분의 의견은 Channel을 만드는 데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Channel을 읽은 후의 느낌과 다양한 생각을 메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신규 구독을 원하시는 분 또는 Channel 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mail : kr-fmchannel@kr.kpmg.com Tel : 02-2112-7567

© 2018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